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허공장원



허공장원은 서방(西方) 제2중에 있으며 지명원 아래쪽에 위치한다. 본원의 주존(主尊)은 중앙의 허공장보살로서 좌, 우에 27존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좌측의 천수천안관자재보살과 우측에 백팔비금강장왕보살을 배치하고 10바라밀보살의 10과와 9존의 보살과 4인의 비천, 2인의 권속들이 배치하여 총 28존으로 배치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⑰ 김광호 · 이상미 부부

진심 담긴 책으로 장애불자들과 교감

장애인을 존중해준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해야 한다고 말은 하기 쉽지만 어려운 일이다. 장애별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당사자의 생각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도 하다.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 없이 일상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해주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예를 찾으라 하면 불교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도반의 대표 김광호 이상미 부부라 말하고 싶다. 서울 방화동 개화사에서 만난 인연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은 보리수아래 장애 작가들의 작품집을 내주고 있고 활동영상 촬영, 피아니스트인 아들의 공연 동참 등을 온 가족이 자원봉사를 하며 신행 생활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성수동 S팩토리에서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렸다. 100여 개의 국내 출판사들이 참가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책전시로 성황을 이루었다. 도서출판 도반의 저자로 보리수아래 장애작가들도 책 문화프로그램 "문학과 장애를 주제로 한 유튜브 토론"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작가들의 날을 하루 정해 현장에서 독자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자리도 마련했었다. 많은 작가를 뒤로 두고 장애작가들을 먼저 배려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참 고마운 일이다.

부부가 한마음 한 몸같이 사람들의 관심이 장애 작가들에게 모이도록 작품집과 작가에 대해 설명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누가 시켜서 될 일은 아니구나 하는 감탄사가 나왔다.

김광호 대표는 "책을 만드는 것은 그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가능한 것이라 기술만 가지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은 불교에 있다고 하는 부부는 "불교가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듯이, 책을 만드는 것도 그저 글만 전달한다고 생각해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장인정신으로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들고 있는 책의 분야로 저자와 함께 깊이 들어가서 서로 말이 통할 정도의 비슷한 경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인 작가 작품집 출간 후원
"'어떻게' 도울지 깊이고민해야"
'보리수아래' 활동 보고 감동해

그 두 사람이 장애인 불자들을 대하는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송강 스님, 동봉 스님, 준수 스님, 황산 스님, 향록 스님, 석암 스님, 선엽 스님 등, 주요 저자 스님들 소개 뒤에 장애 작가들을 주요 저자로 소개하는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고맙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보리수아래 장애 작가들의 작품을 출간하고 있는 도서출판 도반 대표 김광호 이상미 부부.

"최근에는 불자 장애인 단체인 '보리수아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장애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불편한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무척 재미있고 당당하게 해가는 것을 보면서, 불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최명숙 대표를 편집주간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밖에 있는 것도,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한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출판사도 큰 보람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돈이나 권력과 바꾸겠습니까. 오직 몸과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최근 보리수아래 감성수필 첫 번째 책을 낸 윤정열 작가가 마지막 교정을 보기 위해 출판사를 방문했었다. 교정을 다 보고 나니 저녁 8시가 훌쩍 넘었다. 김광호 대표는 윤정열 씨를 안양 출판사에서 수서의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편집일과 하루종일 씨름을 하다 피곤한 저녁에 그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한 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을 불문하고 똑같이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 작가들의 책이 나오면 직접 작가를 만나 전달하면서 축하의 말을 잊지 않고 마음에 드는지를 살피는 배려를 잊지 않는다.

나도 미쳐 생각을 못 하는 부분까지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부부에게 때때로 감동한다.

김광호 · 이상미 부부는 "대장경을 만들어 둔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느리더라도 한 권 한 권 진정성 있는 책을 만들어 요즘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을 내는 것이 곧 행복"이라 말한다. 두 사람은 책 만드는 행복 속에 사람을 부처님처럼 귀히 여기고, 멋진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일한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보살이다.

장애인 포교를 말하며 아무리 좋은 강좌를 기획해 초청해도 다양해지고 바쁜 세상에서 낯선 곳으로 접근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김광호 이상미 부부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교감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행동으로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포교가 될 것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일일시호일

복막염 반복에 수차례 생사기로…
가족걱정에 눈물

캄보디아 출신 찬디라씨 장천공으로 4차례 수술…위험 고비 넘겨
체중 40kg대로 줄어…기약 없는 치료에 병원비는 3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